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4.90원 하락한 1,082.10원에 마감

4일 환율은 전일대비 14.90원 하락한 1,082.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50원 하락한 1,092.5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개장 초부터 리스크온 분위기와 역외 매도세 지속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환율은 낙폭을 확대하였고 장 막판 1,081.1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하였다. 이후 소폭 상승하며 전일대비 14.90원 하락한 1,082.1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12.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41.7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92.50	1093.50	1081.10	1082.10	1086.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56.83	1056.83	1038.88	1040.15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2.31	1332.85	1310.53	1312.27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3	-0.54	-1.12	-2.16
결제환율(수입)	0.25	0.71	1.36	1.7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회복에 1,08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082.10원) 대비 2.25원 상승한 1,084.4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회복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1월 고용보고서 결과, 비농업부문 고용지수가 24만 5천명 증가하며 예상치(46만명)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미국 새 행정부가 고용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을 언급하며 연내 추가 부양책 시행에 대한 타격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른 기대감에 미 증시는 위험선호심리 회복하며 상승 마감하였으며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순매수세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의 미세조정과 실개입 경계 및 결제 등 저가매수 수요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81.25 ~ 1087.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7610.4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25원 ↑
	■ 美 다우지수 : 30218.26, +248.74p(+0.8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0.3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60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